

■ COP6에 대비한 물밑 논의 활발

-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계 30 개국의 환경부장관들이 비공식 회의를 가짐
 - 장관들은 이번 회의가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회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함
 - 앞으로 약 4주 후에 열릴 제 6차 당사국총회(COP6)의 개최국인 네덜란드 환경부장관의 주제로 5일까지 이틀 간 네덜란드 뮤텐에서 개최되었음
- 그러나, 각 국 대표자들은 각 이슈에 대한 뉘앙스를 줄인 것에 만족함
 - 회의 결과 각 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산림과 같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이를 어떻게 산정하며, 규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
 - 대부분의 EU 국가와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탄소 흡수원 산정에 있어서 과학적 기반이 미약하며, 실제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감축없이도 교토의정서의 배출 저감 노력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흡수원 도입에 매우 신중한 입장임
 - 반면,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강력하게 흡수원 도입을 원하고 있음
- 그린피스는 특히 미국, 일본,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함
 -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는 1990년 이래 약 12%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
 - 캐나다는 13%, 미국은 11.5%, 네덜란드는 8%씩 각각 증가하였으며,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 이래로 무려 16.9%가 증가하였음
 - 다른 지역에 비해 서유럽국가에서는 경제의 침체와 오염산업의 이전 등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이 감축됨
 - 1990년 대비 독일은 15.5%, 영국은 12.5%를 각각 감축하였음
 - 프랑스, 스웨덴,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음

천정용(cildon@hanmir.com, 02-3669-4099)